

롤러스케이팅 종목은 부산에 제일 먼저 소개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확인할 만한 근거는 많지 않으나, 롤러종목이 일제강점기에 도입된 것을 감안할 때 일본을 통해 들어왔다는 가정이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기록으로 확인된 바에 의하면 일제강점기 파고다공원 부근의 옥외 링크장이 개설돼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됐다. 이때부터 롤러를 즐기는 사람들이 생겨났으며, 이후 빙상종목의 하계 훈련을 대체해 다소 활기를 띠기도 했다.

부산시는 1972년 대한롤러연맹이 대구에서 정식 결성되자 그 산하대회에 참가하기 시작했다. 이후 대한롤러연맹이 대한체육회에 준가맹하기 직전인 1979년 4월 18일 부산직할시롤러스케이팅연맹으로 정식 출범했다. 출범 이후 부산롤러스케이팅연맹은 대한롤러연맹이 대한체육회에 정식 가맹하기 직전인 1981년 부산시체육회에 정식 가맹단체로 등록했다.

부산은 롤러종목 사상 첫 정식종목으로 개최된 1985년 전국체육대회에 출전, 해운대공고 소속 이현 선수가 T(타임 트라이얼)500m 한국 신기록을 수립하며 우승을 거머쥐었다. 같은 팀의 강호열 선수도 간발의 차로 2위를 차지했다. 부산에서(부산선수단의 전국체육대회 전 종목에서 첫 금메달) 롤러종목 전국체육대회 첫 금메달의 주인공이 탄생한 순간이었다.

당시 부산은 롤러종목의 선전에 힘입어 이 대회 종합 3위를 차지했다. 이후 부산롤러경기연맹은 단거리종목의 전국 최강으로 부상하며 유명 선수들을 배출했으며, 그 전통은 지금까지도 이어져오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나름의 전성기를 구가해오던 부산 롤러스케이팅은 롤러스케이팅에서 인라인으로 바뀌는 등 여러 변화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대처를 하지 못해 1990년대 중후반부터 침체에 접어들었다. 열악한 환경에서 부산 롤러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는 전기를 마련한 것은 2000년 한국주철관공업(주) 김길출 대표가 제6대 부산롤러경기연맹회장에 취임하면서부터였다.

부산롤러경기연맹은 부산시가 주최하는 전국체육대회를 계기로 김길출 회장의 전폭적인 지원과 후원 아래 제81회 전국체육대회에서 부산시체육회 소속(감독 우기석) 실업팀을 앞세워 금메달 2개, 은메달 4개를 획득해 종합 4위를 기록, 오랜 침체에서 벗어나 새로운 부흥기를 예고했다. 또한 총력고 임종하 선수는 제83회 전국체육대회 T300m에서 15년 만에 고등부 금메달을 획득, 단거리의 전통을 다시 세우며 주니어국가대표선수로 선발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이후에도 김길출 회장은 제7대 회장에 재임하면서 아낌없는 지원과 전폭적인 후원으로 연맹을 이끌어왔다.

2009년 5월에는 한국주철관공업(주) 김태형 대표가 제8대 연맹장직에 취임해 열악한 부산 롤러 발전에 젊고 활기찬 기운을 불어넣었다. 그 결과 제91회 전국체육대회에서는 부산 서구청 소속 최봉주 선수가 T300m와 1000m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데 이어 같은 소속(부산시체육회) 김혜진B 선수가 1만 5000m에서 은메달을 추가로 획득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11년 여수세계선수권대회에서는 부산 서구청 소속 우기석 감독이 국가대표 코치로 선임된 데 이어 최봉주 선수 역시 주니어 국가대표선수로 선발돼 금메달 3개,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로 주니어부 최우수상을 거머쥐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 현직 회장

##### 김태형

한국주철관공업(주)대표이사

-2009

제8대 부산롤러경기  
연맹 회장 취임

-2013

제9대 부산롤러  
경기연맹 회장 취임

#### 주요 연표

일자	내용
1972.01.30	경북롤러스케이팅연맹 창설
1973.03.10	한국롤러스케이팅연맹으로 개칭
1977.09.16	캐나다 몬트리올총회 시 국제연맹으로 가맹
1978.02.05	대한롤러스케이팅연맹으로 개칭
1978.02.20	아시아롤러스케이팅연맹 결성(한국, 일본, 인도)
1979.04.18	부산직할시롤러스케이팅연맹 결성
1979.06.20	대한체육회 준가맹단체 승인
1981.02	부산광역시체육회 및 대한롤러스케이팅연맹 정식 가맹단체 승인
1981.06.20	대한체육회 정식 가맹단체 승인
1884.12.23	제66회 전국체육대회 정식종목 확정
1996.12	제25회 소년체육대회 시범종목 확정
1998.12	제27회 소년체육대회 정식종목 확정
2000.01	부산시체육회 인라인롤러팀 창단
2000.01	제81회 전국체육대회 개최
2001.01.18	부산광역시롤러경기연맹으로 명칭 변경
2001.05	제30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개최
2004.01.17	부산광역시인라인롤러연맹으로 명칭 변경
2007.06	실업팀 서구청으로 이적 창단
2011.01	부산광역시롤러경기연맹으로 명칭 변경

#### 역대 회장

제1대	김천석	1982.01~1982.12
제2대	류영생	1983.01~1984.12
제3대	정준근	1985.01~1988.12
제4대	김지태	1989.01~1993.12
제5대	강숙자	1998.02~2000.02
제6대	김길출	2000.02~2009.02
제7대	김태형	2009.05~현재

#### 현직 회장 및 임원

연맹 직위	성명	소속
회장	김태형	한국주철관공업(주) 대표이사
수석부회장	정영근	화신스포츠 대표
감사	이진우	한국주철관공업(주)
부회장	강동환	
	김호석	한국주철관공업(주) 팀장
전무이사	우기석	부산서구청 롤러감독, 직장운동부 감독
경기이사	최명균	개인사업
훈련이사	조관희	(주)제트에프코리아
시설이사	오재익	동남여객(주)

# 29 부산 볼링협회

연맹 직위	성명	소속
섭외이사	김한규	성원무역
기술이사	임종하	온천초등학교
총무담당	김승희	한국주철관공업(주)

### 선수등록 현황

연도	계(팀/인원 수)	구분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2007	10/19	2/2	3/6	3/6	-	2/5
2008	6/12	1/0	2/3	2/5	-	1/4
2009	12/20	4/4	3/4	3/7	-	2/5
2010	8/15	2/3	3/4	1/2	-	2/6
2011	9/18	2/3	2/6	2/2	-	3/7
2012	13/24	4/6	4/8	2/2	-	3/8

### 전국체육대회 성적(최근 6년)

연도	종합순위(특점)	획득메달 (금/은/동)	구분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2007	13(116)	0/0/0	14(29)	-	12(86)
2008	12(536)	2/1/0	10(230)	-	9(305)
2009	13(187)	0/0/1	7(187)	-	12(0)
2010	6(756)	2/1/0	13(23)	-	4(732)
2011	9(301)	0/1/1	8(122)	-	8(179)
2012	13(119)	0/0/0	12(0)	-	11(119)



볼링의 기원은 명확하지 않으나 고대 이집트로부터 유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국의 고고학자 프 란다스 페트리 교수는 이집트의 고분을 발굴하던 중 BC 5000년경으로 추정되는 어린이 무덤 속에서 현대의 볼링공구와 유사한 형태의 볼과 핀을 발견했다. 죽은 사람이 생전 가장 즐기고 아끼던 물건을 같이 매장하던 풍습이 있었던 점으로 미뤄 고대 이집트에서도 어떤 형태로든 볼링이 행해졌 으리라 추측된다.

또한 학자들은 이것을 오늘날 지구상에 생겨난 최초의 볼링공구로 보고 있다. 유럽인들에 의해 처음 미국으로 전파된 나인 핀 게임(Nine Pin Game)은 이전까지 제각기 달랐던 핀의 개수를 9개로 통일해 다이아몬드 형태로 핀을 세우도록 하는 등의 게임규칙을 만들어 볼링경기에 적용했다. 이후 핀의 개수는 9개에서 10개로 늘어났으며, 세팅방법도 다이아몬드 형태에서 삼각형으로 바뀌게 됐다. 이때부터 볼링경기는 일반인들 사이에서 붐을 일으키며 법의 제한을 받지 않는 순수 스포츠로 성 행했다.

1895년 9월 9일에는 뉴욕에서 처음으로 미국볼링협회(ABC)가 설립돼 볼링의 저변 확대가 이뤄 지게 됐다. 이 무렵 볼링경기는 규칙 통일과 볼과 핀, 레인 등의 공구에 관한 세칙이 제정됐다. 우리나 라에서는 호텔 및 미군부대 내 볼링장이 들어서면서 일반인에게 보급됐다. 88올림픽대회 시범종목 으로 채택된 이래 권중용 선수가 개인전 금메달을 차지한 데 이어 아시아경기대회 정식종목으로 채 택되면서 우리나라는 독보적인 성적을 거두고 있다. 특히 여자부는 세계선수권대회에서도 미국과 함 께 세계 최강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부산볼링협회에는 중·고·대학생부와 일반부를 포함해 8개 팀에서 70여 명의 지도자 및 선 수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부산광역시청 남자팀은 전국 최고의 명문 팀으로서 국내 및 국제 대회에서 매년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04년 국가대표 감독을 역임한 최장석 감독 을 비롯해 국가대표선수를 가장 많이 배출한 팀이기도 하다.

### 현직 회장

**김명진**  
 파이스트마린(주)  
 대표이사  
 - 1999.12~현재  
 파이스트마린(주)  
 대표이사  
 - 2012.04~현재  
 (사)한국해양레저  
 네트워크 산업위원회  
 부위원장

### 역대 회장

제1대	이현택	1982.01~1982.12
제2대	유창목	1983.01~1983.12
제3대	김만기	1984.01~1984.12
제4대	박병진	1985.01~1986.12
제5대	이병인	1987.01~2000.02
제6대	안성환	2000.02~2010.02
제7대	김명진	2010.02~현재

### 현직 회장 및 임원

협회 직위	성명	소속
회장	김명진	파이스트마린(주) 대표이사
	김대영	(주)케이알테크 대표이사
	송세희	퍼시픽블루엔리조트 이사
부회장	송연익	(주)에스엠개발 대표이사
	윤도원	중앙기업(주) 대표이사
	지삼엽	부경대학교 교수